

# 해남서 파인애플 재배 성공 “아열대 과수 국산화 속도”

### 농업기술센터내 ICT첨단하우스 2개동 실증재배 하반기 수확 앞뒤...내년 관내 2개 농가 시범재배

해남군이 바나나에 이어 파인애플 재배에 성공해 아열대 농업 메카로서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농업기술센터내 ICT첨단하우스 2개동 1,000㎡에 파인애플 실증재배를 실시, 하반기 수확을 앞두고 있다.

재배중인 파인애플은 1년생 묘목을 올해 1월 식재한 것으로, 두껍고 뾰뚱한 잎 사이 줄기에서 솔방울 같은 열매가 맺혀 지름 10cm 가량까지 자란 상태이다. 올해 10~11월 경 수확할 예

정으로, 내년에는 관내 2개 농가에 보급, 시범 재배를 실시한다.

군은 실증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성 검증과 토양 및 유기물 등에 따른 생육상황을 비교, 적정 재배기술을 정립하면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산 파인애플은 충분히 숙성한 뒤 수확해 숙성 전 수확하는 외국산에 비해 맛과 향이 월등히 뛰어나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각종 검

역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

연간 7만 8천여톤이 수입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연간 7톤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산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산 파인애플은 프리미엄 과일 시장 판매 및 기능성 식품 첨가물 등으로 전량 소비되고 있다.

군은 국내산 파인애플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내재해형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 구축과 재배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4년부터 아열대 작목 발굴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 바나나, 애플망고, 무화과, 참다래 등 16개 아열대 작목을 180

여 농가, 125ha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쳐 관내 보급된 바나나가 첫 수확을 하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파인애플 재배 성공으로 아열대 작목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아열대 농업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전국 최초로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소비 성향의 변화로 아열대 작목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며 “아열대 작목의 신품종 도입으로 해남을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여름 휴가철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 전개

### 휴가철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 만남·고향 방문 자제 호소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거센 상황에서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한다.

‘다 함께 잠시 멈춤 운동’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 만남 자제를 요청하고, 특히 향우들의 고향 방문을 잠시 미루어 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가

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 곳곳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들의 발걸음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 완도군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섬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군은 초긴장 상태이다.

또한 타 지역 확진자의 방문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에 여름 휴가철 ‘잠시 멈춤 운동’을 통해 확산세를 꺾고자 군수가 직접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향우회 또한 전국 향우회장 공동 명의의

호소문을 30만 향우에게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 특성에 맞는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하여 대합실, 여객선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재점검해 촘촘한 방역망을 갖출 계획이다.

여름휴가 기간과 추석 명절에 별조를 위한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별조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장흥군-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장흥군은 지난 7월 22일 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기타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사유재산 피해 주민·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진도=조성용기자

## 강진 중앙로 상가,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지원사업 선정

### 다음달 10일 공영쇼핑서 구매 가능...온누리 상품권도 제공

강진군은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관광개발이 추진하는 ‘팔도장터 명물 보따리 판매 지원사업’에 강진 중앙로 상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전통시장 중 5

곳을 선정해 각 장터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상품으로 보따리를 만들어 제작·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시장으로의 재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강진군 명물 보따리는 강진책빵, 스무디밀, 동백오일, 한입전병으로 구성되며, 판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4시까지 온라인 공영쇼핑에서 1,000묶음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다



양한 상품이 전국으로 소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상품 판매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